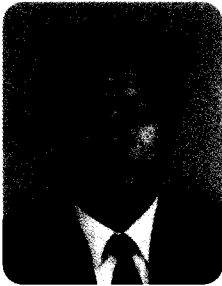


녹나무

- ▶ 과명 : 녹나무과
- ▶ 학명 : *Cinnamomum camphora*
- ▶ 영명 : Camphor Tree
- ▶ 한명 : 樟腦木, 樟樹
- ▶ 일명 :



최명섭 임업연구원

녹나무는 제주도에 조경수로 사용되기보다는 생활 용재 특히 해녀의 바다물질에 이용되는 각종연장을 만드는데 이용되었다. 목재나 잎에서 추출되는 장뇌유(樟腦油)의 향기가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와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 규슈(九州)가 1,400년대부터 유럽과 교역을 하였는데 향료를 많이 사용하는 유럽과 주력 상품이 장뇌유라는 것과 맥이 통한다하겠다. 그렇듯이 녹나무는 제주도에 자생지가 여러곳 있으나 수난을 당해 자생지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 지난달 출장으로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삼성혈(三姓穴)에 들러 녹나무의 거목을 확인한바 있으나 주변에 어린나무가 거의 보이지 않아 생태적으로 안정된 영속있는 숲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넓은 공원의 잔디밭 중앙에 녹나무를 식재하여 그 그늘아래에서 온 가족이 모여 즐기고, 한적한 시골길에 가로수로 식재된 녹나무의 터널을 지날때는 이나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1. 생태적 특성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리의 녹나무 자생지군락과 삼성혈의 녹나무 거목과 남제주군 대정이란 곳의 녹남봉이라는 산봉오리의 이름이 녹남봉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 말해주듯이 제주도에 많은 녹나무가 자생



▲ 녹나무



▲ 녹나무열매



▲ 녹나무(檫)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지리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대만에 분포한다. 상록활엽큰키나무로 수고 20m, 가슴높이 직경 2m에 달하며 일본에는 나무의 둘레가 22m나 되는 거목이 있다. 산기슭이나 마을주변의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며 내음성과 대기오염에 약하며 내한성도 낮아 내륙지방에서는 식재가 불가능하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며 길이 6~10cm, 넓이 3~6cm로 계란모양을 닮은 긴 타원형인데 잎자루가 길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으며 부드럽고 완만하다. 꽃은 양성(兩性)으로 작고, 5월에 피는데 백색에서 황색으로 되며 열매는 지름 8mm의 핵과로 작고 둥글며 10월에 흑자색(黑紫色)으로 익는다. 유사종으로 생달나무(*Cinnamomum japonicum*)이 남해안 도서지방에 자생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크게 자라는 이 나무는 연한 초록색 잎이 바람에 흔들릴때 찬란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질감이 부드럽고 윤택이 나는 나무아래에서 먼 여름철 따가운 햇빛은 간데없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나무의 고마움을 다시한번 느낄것이다.

공원의 잔디밭 중앙이나 주변에 군식을 하여도 어울리며 가로수로도 맹아력과 수형조절이 자유로워 식재

합만하다.

장수목으로 수형이 아름답고 질감이 좋아 제주도에 서는 기념수목으로도 식재합만하다.

4. 번식법

번식은 주로 파종에 의한다.

○ 파종

11월에 익는 종자를 채취하여 정선한뒤 노천매장하였다가 이듬해 파종하는데 발아율이 80%이상 높아 번식도 용이하다. 발아가 되면 차광망을 덮어 직사광선을 겨울에도 방한시설을 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20cm간격으로 이식하는데 생장속도가 매우 빨라 계속적으로 이식작업을 해주지 않으며 수형을 망가뜨릴 염려가 있다. 3년생부터 상품화할수 있다.

5. 그 밖의 용도

목재의 결이 고와서 조각재, 건축재, 가구재로 알맞고 선박재로도 훌륭하다. 잎과 목재에는 장뇌유(樟腦油)라는 기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가지와 뿌리는 강심제를 만드는 약의 원료가 된다. 잎은 서양요리의 소스를 만들때 이용하기도 하며 차대용으로 사용하며 추석 명절에 송편을 찰때 찜그릇바닥에 잎을 깔고 떡을 찌면 향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에 좋다.

조경수

